

## 사목 공지

### 축영환

- 예비자 입교식: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중
- 환영식: 10:30am 미사 후, 미카엘 방

성소후원 특별헌금: 1월 19일(주일)

성령기도회 미사: 1월 23일(목) 7:30pm

사목회의: 1월 26일(주일) 1:00pm

설 합동 위령미사: 1월 31일(금) 7:30pm

- 합동연도: 7:10pm
- 오전 9:30am 미사는 없습니다.

전임, 후임 사제 인사이동

-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 안식년
- 김민수 야고보 신부님: (교포사목 남경)
- 전상현스테파노 신부님: 제 1보좌 - 후임사제
- 임기선 요셉 신부님: 주임사제
- 노호영 미카엘 신부님: 제2보좌
- 이남웅 신부님: (언어연수)

초 축성(주님 봉헌축일)

- 2월 2일(주일) 10:30am 미사 중,
- 제대에 일년 동안 사용할 초를 봉헌하실분은 성물부에 신청 (제대용: 9불, 개인용: 6불)

은빛대학개강: 2월 6일(목) 9:30am 미사 후

- 접수: 2월 2일(사무실 앞), 6일 당일접수

혼인 교리강좌 (년2회)

- 일시: 2월 16일(주일) 12:30pm-6:00pm, 가브리엘 방
- 대상: 2월-8월까지 혼인을 준비하는 결혼 예정자

2014년, 새해 맞이하여 전교우 성경 읽기

- 2014, 1월 1일부터 전교우 영적, 내적 성장을 위하여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안내 유인물 참조)
- 성경읽기 완독하신분들 연말시상이 있습니다.

우리본당이 가치관을 세우고 확립해야 할 덕목들(요약)

1. 가톨릭 신앙의 가치관
2. 가톨릭 순명의 가치관
3. 가톨릭 정의의 가치관
4. 가톨릭 정체성의 가치관

## 일반 공지

평일미사 반주봉사자 모집: 문의 수녀원

쌍무스 성가대 정기총회

- 일시: 1월 26일(주일) 9:00am 미사 후

주일학교교사피정: 1월 25일(토)-26일(주일)

한글학교개학: 2월 1일(토)

주일학교 개학: 2월 8일(토)

달력의 스마일 틀니치과 전화번호 (8544 1770) 으로 정정.

플레이그라운드 봉사자 모집

- 매주 수요일 10:00 am-12:30pm
- 문의: 0417 177 101

단체모임

- 요한회: 1월 1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안나회: 1월 1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전례독서단: 1월 1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글로리아 성가대: 1월 1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청년연합회: 1월 25일(토) 7:30pm 미사 후

## 금주 성경 읽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루카 10-11	루카 12-14	루카 15-17	루카 18-19	루카 20-22	루카 23-24	요한 1-3
묵상말씀: 남을 죄짓게 하지마라 (루카 17.1-3)						

오늘의 중식 메뉴: 오징어 덮밥(2지구)

## 2014' 상호존중 캠페인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감사헌금	기 타	이월금	수 입	지 출	잔 액
\$ 16,409.50	\$ 505.05	\$ 5,800.00	\$ 83,342.44	\$ 22,714.55	\$ 26,190.00	\$ 79,866.99

## 감사,기도, 전출입

감사:

- 그동안 수고하신 전임 지구장님들께 감사
- 성당 카펫트 청소해 주신분께 감사(익명교우도네이션)

전입교우:

- 김수진 로시멘 가족, 김혜진 미카엘라
- 최규원 안드레아, 양소정 루시아

## 주일 봉사

날짜	19/1	26/1,2/2	9,16/2	23/2,2/3
지구	8지구	9지구	10지구	11지구
전례, 커피, 청소 9:00am, 10:30am 미사 중				

주님 세례 축일 미사 참례수: 1,850 명



##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주보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SYDNEY

주보 성인: 한국 순교성인과 성 스타니슬라오

발행일: 2014년 01월 19일

주 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http://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사 무 실: 8756 3333(대표번호) 8756 3334  
8756 3335(FAX)  
사 제 관: 8756 3330(주임신부), 8756 3331(제1보좌신부)  
8756 3332(제2보좌신부), 9558 3498(고해신부)  
수 녀 원: 8756 3336  
주임신부: 김동규 미카엘 사목회장: 정영수 사도요한

평 일	토요일	주 일
월: 7:30pm 화: 7:00am 수: 7:30pm 목: 9:30am 7:30pm 금: 9:30am	9:30am(신심미사) (첫째주, 둘째주) 4:00pm(초등부) 5:30pm(중고등부) 7:30pm(청년부)	7:00am 9:00am <b>10:30am(교중)</b> 5:00pm(City) 5:30pm(영어) 7:30pm

## 연중 제 2 주일

제1독서: 이사 49,3.5-6

◎ 알렐루야.

화답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복음 : 요한 1,29-34

제2독서: 1코린 1,1-3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  
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전례성가: 입당: 2 / 봉헌: 513, 511 / 성체: 160, 161 / 파견: 64

화 답 송:



## 평일미사(독서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영성체송
20일(월)	1사무 15,16-23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마르 2,18-22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21일(화)	1사무 16,1-13	나는 나의 중 다윗을 찾아냈노라.	마르 2,23-28	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22일(수)	1사무 17,32-33.37.40-51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마르 3,1-6	주님,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23일(목)	1사무 18,6-9; 19,1-7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움이 없으리라.	마르 3,7-1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24일(금)	1사무 24,3-21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마르 3,13-19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25일(토)	사도 22,3-16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18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노라.

생활 속의 복음

“연중 제 2 주일 - 하나님의 어린양”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 ‘하나님의 어린양’ 은 레위기 16장이나 탈출기 12장 그리고 이사야 예언서 53장을 더불어 읽고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어린양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잠시 그 당시의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제사장은 경건한 복장과 성스럽고 치밀한 의식으로 한 마리의 어린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참여한 백성들은 감사와 안도 그리고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는 자신들이 짓고, 속죄와 희생은 아무 상관 없는 한 마리의 어린양을 제대에 바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속죄양으로 대속(代贖)된 어린양의 들릴 듯 말 듯한 외마디 비명소리도 귓전에 남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대신할 이런 속죄양을 만들어 내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과 재산을 위해, 허욕과 자존심을 위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속죄양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어떤 때는 시간을, 수많은 핑계를, 나 말고 그 어떤 것이라도 대속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안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위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그 속죄양의 모습으로, 스스로 세례자 요한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앞으로 그 속죄양의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다가오십니다.

내 앞으로도 오십니다. 또다시 내가 당신을 속죄양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또는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은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런 것이 구원자의 길임을 가르쳐 주러 오십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속죄양이 되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인지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가진 길은 분명 그런 길인데 나는 왜 안되는지요?

어느 날 나의 아픔과 비명으로 인해 다른 이가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번 차례는 내가 속죄양이 된다 한들 그렇게 억울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헤아려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있을지 모를 나의 무너짐조차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그 길을 따르기 어렵다면 이 한 주간, 어쩌면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가 속죄양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귀석신부  
개봉동성당 주임

예비자 교리			버스 운행 시간표		
8월반	주 일	10:10am (전 스테파노 신부님 )		리드کم 역 ⇨ 성당	성당 ⇨ 리드کم역
9월반	토요일	5:00pm (주임 신부님)	토	오후 3시 10분	오후 6시 40분
2월반		추후공지	주일	오전 8시 20분, 8시 45분 오전 9시 50분, 10시 15분	오전 9시 미사 후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함께 기도합시다

권영해 베네딕토  
김금선 마리아  
김광호 게오파스  
김영복 세실리아  
김연심 프란체스카  
김지현 프란체스카  
김중훈 돈보스코  
김태균

김태영  
김환영 마르타  
김명훈 베드로  
고일순  
노수진 베로니카  
박인희 베로니카  
석송 베드로  
신병각 가브리엘

안경수 필립보  
여수레 마리아  
이래고 안젤라  
이성준 안드레아  
이애자 오틀리아  
이억석 바오로  
이영민  
이은정 오틀리아

이용수  
이종윤 라우렌시오  
이혜영 프란체스카  
유기현  
임순자 마리아  
임혜정  
은동현 유스티노  
장춘자

전인혜 줄리아  
정명화  
정 바실리오  
정영희 켈마  
정현옥  
정현주 까리파스  
조규정 이레네오  
최춘자 안나

한 폴  
황선용 크리스티나  
최성규 요한

- 기도지향을 기재하여 봉헌함에 꼭 넣어 주세요. -  
(이름과 세례명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째주에 새로 기재합니다.)

【사도신경 해설 50】“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8)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에 관한 논의의 가장 적합한 자리는 교회에 관한 논의의 마지막 장이다.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이상이고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교회가 완전한 방식으로 성취되어 교회가 늘 바라보면서 본받아야 할 본보기이다.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독특한 지체” 이다.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기는 교회가 태어나는 자리에 그분이 ‘주님의 어머니’로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마리아 이름을 가진 세 여인들과 ‘사랑하시는 제자’ 등 다섯 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갓 태어날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다.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두 분에게 각각 이렇게 선언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요한 19,26-27) 이 두 말씀으로써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사이에 모자관계를 맺어 주셨다.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 칭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다. 당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넘어서 성경의 두 대목에서 등장하는 ‘구원의 여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리라.” (창세 3,15)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이다.” (묵시 12,1) 예수님은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이시므로 당신과 더불어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여인’으로 간주하신 것이다. 그녀가 교회의 어머니 되신 것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첫 열매이다. 구세주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로 그분에 의해 십자가의 구원 효과를 입어 ‘제자의 어머니’ 곧 ‘교회의 어머니’로 선언되었다. 그래서 성령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나는 그 자리에 마리아는 사도들과 함께 중심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

의 어머니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14)

예수님 생전에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 구원의 여인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미리 보인 적이 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 받으셨다.” (요한 2,1) 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없는 것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아채시고 아드님께 청하셨고 이분이 거절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2,5) 고 잔치 봉사자들에게 지시하였다. 이로써 마리아는 아드님이 ‘좋은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혼인잔치 일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훌륭히 해냄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이의 중개자로 또한 ‘구세주의 협력자’로서도 모습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평소에 메시아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참으로 유익한 협조였다고 판단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는 순간에 교회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어머니마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셈이다.

마리아는 성자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사실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영신적 어머니’가 되신다. 은총의 세계에서 교회의 어머니시다. 그녀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머리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설립 순간부터 기도로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는 지상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전구하시며 모든 이를 위하여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 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영향력을 행사하신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009년 5월 10일 부활 제5주일 가톨릭마산 8면]

연령회 문의: 0427 995 488		버스 봉사자		차량 문의 : 0414 488 700	
2호차 (리드کم) - 토요일 봉사		1호차 (캠시)	2호차 (캠시)	3호차 (이스트우드)	4호차(리드کم)
03:10pm 리드کم, 06:40pm 성당 출발		주일 - 09:30 캠시 출발	주일 - 09:30 캠시 출발	주일 - 09:30 출발	주일
01월18일: 하춘성 루카, 이승준 에드윈 01월25일: 최종문 아오스팅, 김예환 스테파노 02월01일: 장기영 토마스, 이정근 사도요한 02월08일: 임준홍 베드로, 김예환 스테파노 02월15일: 하춘성 루카, 이승준 에드윈		01월19일: 정선주 마르코 01월26일: 양재봉 다니엘 02월02일: 02월09일: 고영식 파스칼 02월16일: 정선주 마르코	01월19일: 신영대 요셉 01월26일: 김영권베네딕토 02월02일: 최상현 베드로 02월09일: 유시환 베드로 02월16일: 신영대 요셉	01월19일: 김진태 앤드류 01월26일: 최홍래실베스텔 02월02일: 최영수 율리오 02월09일: 최홍래실베스텔 02월16일: 김진태 앤드류	01월19일: 최 안젤라 01월26일: 서용호 마테오 02월02일: 문석주 필립보 02월09일: 양명숙 모니카 02월16일: 최 안젤라